생명공학 틈새시장을 노려라!

맞춤형 신약 개발에 R&D 확대 시급 … 기술수준이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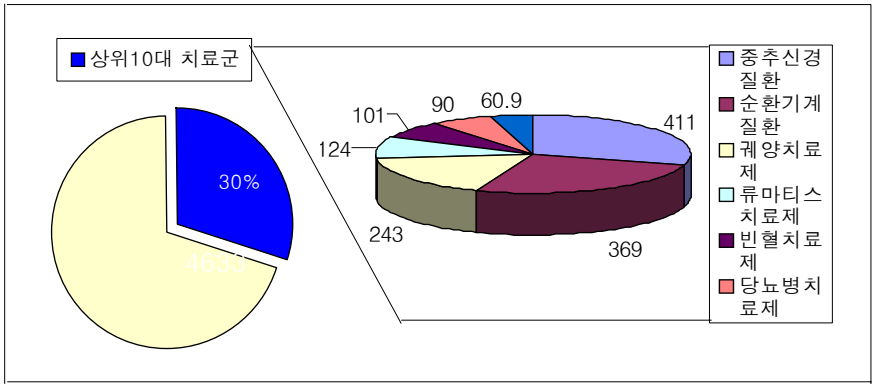
국내 제약기업은 신약 개발전략 수립과 집중적인 R&D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와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 및 이사장 이장한)는 6월17일 <21C 제약산업 발전방안> 세미나를 열고 R&D투자에 집중해 독자적인 신약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의약품 유통시장의 M&A를 통한 비용절감 및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CJ 이장윤 부사장은 주제발표에서 "세계기준으로 국내 제약기업을 분류하면 대부분이 벤처기업 수준으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신약개발 시 기초연구는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기반기술을 확보한 벤처기업 등이 수행하고, 제약기업은 Blockbuster Pipeline Needs를 충족시키며 BBVI(Blockbuster Value Index)에 따른 목표를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함으로써 임상 1상 또는 2상까지 실시한 후 아웃라이센싱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는 4633억달러로 30%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10대 치료군이 중추신경질환, 순환기계질환, 궤양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빈혈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으로 분류되는데 합성의약품이 92%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2003) (단위: 억달러)



LG생명과학 송지용 부사장은 "신약 개발과정에서 잠재적 질병에 관련된 Target에 대한 Validation에 중점을 두고, Lead Identification 면에서는 HTS 대신 Focus Library를 이용한 Screening에 Combinatorial Chemistry를 결합한 접근방식이나 구조지식에 근거한 Lead Identification도 많이 시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오의약품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시장규모가 큰 선진국을 목표로 특허가 만료되는 Biogeneric 제품을 DDS(약물전달시스템) 기술을 이용해 2세대 바이오의약품으로 개발하고, 특히 치료용 항체 분야에서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임종규 과장은 2005년 신약 개발예산을 299억원으로 11% 확대하고, 바이오신약 부문 지원을 114억원으로 36%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6/22>